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3건 지정 예고

청성군사우·이윤성 모자 정려·설보비... 26일까지 예고기간 거쳐 지정

임실군이 임실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청성군사우, 이윤성 모자 정려, 설보비 등 3건을 지정 예고했다.

군은 임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김태진 임실문화원장, 한문종 전북대학교수, 박장근 군산대학교수, 전경미 예원예술대학교수, 김진돈 전라극석문연구회장, 김영구 문화체육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들의 향토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전원 만장일치로 지정을 가결했다.

이어서 임실군 향토문화유산은 2010년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제정되고 2015년 이상형 묘비를 지정한 이래 지금까지 13건의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했다.

‘청성군사우(淸城君祠宇)’는 임실군 삼계면 어은리에 위치한 청성군 한종손(韓終孫, ~1467)의 부조묘로서 정면 1칸, 측면 1칸의 작은 사당으로 한종손의 후손들이 1723년에 연산의 묘소에서 삼계면 어은리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종손은 무과 출신으로 세조대 좌익공신에 책봉되고 청성군에 봉해졌으나 안타깝게도 39세에 요절하자, 그의 부인 관산김씨가 아들들과 함께 낙향하여 지금까지 세거하고 있다.

‘이윤성 모자 정려’는 1904년에 어머니 여산송씨의 열행과 아들 이윤성(李潤成, 1814~1862)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로 지어졌으며, 임실군 관촌면 주천리(배나드리)에 소재하고 있다.

어머니 여산송씨는 이종삼(李宗三, 1809~)의 부인으로 송지순의 딸이고, 외조는 함안조씨 윤학 조평 선생의 후손이다.

남편이 과거길에 올랐다가 일찍 생을 달리하자 목숨을 끊으려 하였으나, 이윤성을 양자로 들여 후사를 이었다.

이윤성은 본관은 상주이고 자는 백현인데, 여산송씨를 친어머니처럼 봉양하였으므로 유림



임실군이 임실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청성군사우, 이윤성 모자 정려, 설보비 등 3건을 지정 예고했다.(사진은 설보비)

들의 천거에 의하여 1904년에 정려를 받을 수 있었다.

‘설보비(雪伏碑)’는 1879년에 조성된 것으로 임실군 덕치면 화문리에 위치한 비석으로 높이는 88cm이며, 비문은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 선생이 지은 것이다.

내용은 병자호란 전후로 대가품에 1639년 춘분날 밤에 ‘애석(崖石) 사이로 눈자취’를 따라 보를 쌓고 수로를 내어 화문리 일대에 관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윤학(雲鶴) 조평(趙平) 선생의 공이

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마보(洗馬伏), 서리보, 설보라고 불렸으며, 농경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1879년 그 후손 청경 조병용 선생이 다시 설보를 수리한 후에 세운 비석이 이 설보비이다. 임실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정 예고된 3건의 임실군 향토문화유산은 오는 2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의견은 임실군청 문화체육과(063-640-2315)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가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AURI)에서 시행한 한옥 전문인력양성 우수기관에 선정됐다.(한옥체험 및 실습 모습)

전북대, 한옥 전문인력양성 ‘우수’

국토부·건축공간연구원 시행 우수기관 선정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가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AURI)에서 시행한 한옥 전문인력양성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기관을 인증하는 것으로, 그동안 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심사가 이뤄졌다.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는 고창캠퍼스를 한옥특성화 캠퍼스로 육성,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구축해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동안 장기 프로그램인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 한옥기능인력양성사업 등을 비롯해 단기 프로그램인 온돌교육, 고위공직자 한옥연수, 외국인 한옥연수, 교사 한옥연수, 청소년한옥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한옥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1,5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외에도 미국, 일본, 그리스 등의 해외와 국내에서 1년에 10여 차례 이상 한옥전시회를 개최하고, UNESCO 세계학술대회 등에서 한옥을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건축계 최초로 ‘한옥개론’이 K-MOOC에 선정돼 국내 국립대학교와 전북지역 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 알제리, 미국 등에 한옥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 캐나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과 수출협상을 추진하는 등 한옥을 통한 한류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고창캠퍼스에 ‘한옥건축학과’를 설립해 본격적인 한옥전문인력 양성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정은성기자

예술위, 올해 문화예술 사업비 3655억원... 전년비 21.3%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3일 ‘새로운 일상, 문화예술은 더욱 풍요롭게’를 목표로 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비는 3014억원에서 36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액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학은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시각예술 분야는 32억원에서 48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청년예술가 지원은 10억원에서 30억원, 무대예술 전문교육은 6억원에서 45억원,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 활성화 관련 기초예술다양성증진 예산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었다.

창작 지원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년간 지원 체

계를 기존 2개 사업에서 5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했다. 또 예산 확대를 통해 개별 지원 사업의 규모와 지원 단가는 상향한다.

‘아르코문화창작기금’은 80명에서 280명으로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시각예술지원사업은 평균 지원 단가를 전년 대비 39.3% 상향한다.

예술위가 운영하는 아르코예술극장 및 대극로예술극장은 공연예술 현장 파트너십을 더 강화한다. 신진 작가의 창작극 발표 기회 제공을 위한 ‘봄작가, 겨울무대’를 지속 추진하고, ‘미래의 미술관’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한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도 확대하고, 새로운 가상 융합 환경인 메타버스에서의 예술 창작 및 발표와 관객과 소통하는 프로젝트도

신규로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작,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1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지난 2019년 신설했던 청년예술가생애초기지원 사업은 올해 3배 규모로 확대했다. 총 예산 10% 규모인 3억원으로 ‘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통합 교육 프로그램 ‘아르코영아티스트랩’을 신설한다.

또 일자리 사업을 다각화해 총 29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6억원에서 45억원 규모로 확대한 무대예술전문교육과 연계해 무대기술 인턴십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문화누리카드의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 전년 197만명 대비 올해는 263만명에게 발급할 예정이다. 특히 31만명으로 추산되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전원 카드를 발급한다. /뉴시스

한국뮤지컬어워즈, 토크콘서트·포럼·피칭 온라인 사전행사

‘제6회 한국뮤지컬어워즈’가 부대행사 프로그램 ‘스테이지 시리즈’로 온라인을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이사장 이종규)는 뮤지컬배우 정영주가 진행하는 ‘오프 스테이지’와 뮤지컬 전문가 및 관객이 함께 2021년 뮤지컬 시장을 돌아보는 ‘포럼 스테이지’, 2021년 한해 동안 개발된 창작뮤지컬 창작자들의 작품 피칭 ‘피칭 스테이지’를 한국뮤지컬어워즈 공식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첫 번째 프로그램 ‘오프 스테이지’는 뮤지컬배우 정영주가 소개하는 뮤지컬배우 3인방 서예림, 이아름슬, 정다희 배우가 출연하는 비대면 토크 콘서트다. 세 명의 배우가 뮤지컬 넘버뿐 아니라 팝,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포럼 스테이지’에서는 공연제작사 (쥬랑)의 안영수 대표의 진행으로 원종원 평론가와 일

반인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작품상 후보에 오른 11개 작품을 비롯한 2021년 뮤지컬 시장 전반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피칭 스테이지’는 2021년 한 해 동안 개발된 창작뮤지컬 작품들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사 매칭을 지원하고, 창작진이 소개하는 피칭 행사다. 뮤지컬 ‘기러기’, ‘도담도담’, ‘리진’, ‘스펙트럼’, ‘언젠가, 달로’, ‘익스프레스 터미널’ 총 6작품의 창작자 피칭과 쇼케이스 영상을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한국뮤지컬어워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제6회 한국뮤지컬어워즈’는 한국뮤지컬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터파크씨어터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컬 시상식이다. 오는 10일 오후 7시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진행되며, 한국뮤지컬어워즈 네이버TV에서 생중계된다. 오후 5시부터는 뮤지컬 스타들의 레드카펫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